

# 기출의 수[秀]법

2025\_06 생활과 윤리

## 분석서 구성

- 용어 정리

\*사상적 입장: 해당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

\*공통적 입장: 둘 이상의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입장

\*차별적 입장: 한 사상가는 동의, 나머지 사상가는 비동의할 입장

---

**[Comment]** 주요 사상가 정보, 선지에서 봐야 할 포인트 혹은 해야 했던 생각, 필자가 생각하는 난이도.

**[정답 선지]** 이 선지가 정답인 이유.

**[오답 선지]** 이 선지가 오답인 이유, 당연히 오답인 선지는 설명을 생략함.

**[Tips]** 해당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하면 좋은' 생각.

(정답률 출처: 메가스터디)

\*정답률이 높은 편인 윤리학 분류, 윤리적 논쟁 문제는 제외하고 해설을 구성하였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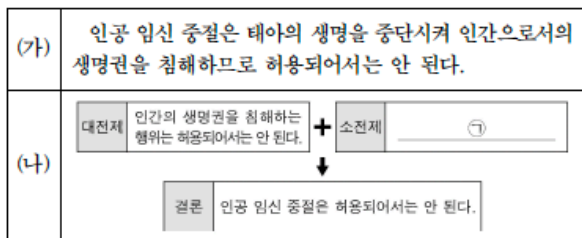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 제 (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특정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① (가):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가):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④ (나):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도덕적 추론과 합리적 논증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2.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② 배아, 태아,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다.  
 ③ 태아는 인간이지만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④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이지 인간으로는 간주될 수 없다.  
 ⑤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갖지만 임신부의 선택권이 우선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행위 개념은 말이란, 말 이외의 수단이란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주체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다. 행위자들은 일치된 의견 아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추구한다.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은 논증적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려는 합의에 호소한다. 의사소통 합리성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①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③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위해 논증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④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한다.  
 ⑤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4.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핵심적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에 접근할 수 없다.

<문제 상황>

학생 A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상 플랫폼에서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결식아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동을 후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하세요.  
 ②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③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도구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④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세요.  
 ⑤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 관념에 따라 행동하세요.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중 그동안 망각되었던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을: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의 선용과 악용은 인간 속에 들어 있는 다른 근원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 기>

- ㄱ. 갑: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ㄴ. 갑: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 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ㄷ. 을: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중립적이다.  
 ㄹ.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그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급진적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만 급진적 능력만으로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이 수단은 사회 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비의 근본 동기는 차별적 비교에 따른 경쟁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은 자신의 상위 계층을 동경하고 소비 행위를 모방하며 이를 통해 같은 계층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계층에서도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 ①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가?
- ② 과시적 소비의 욕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서도 나타나는가?
- ③ 동일 계층 내에서의 경쟁심은 과시적 소비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 ④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는 하위 계층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는가?
- ⑤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하는가?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러지기를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兼愛] 서로 이롭게 해야만[交利] 한다.  
 을: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생업[恒産]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恒心]을 지니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보 기>

- ㄱ. 갑: 군주는 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ㄴ. 갑: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 ㄷ. 을: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이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 문화 산업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문화 산업은 인간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 고객에 대한 문화 산업의 가장 큰 봉사는 빼앗긴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은밀하게 작동하는 문화 산업은 인간의 의식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 문화 산업이 문화 상품의 소비 촉진과 이윤 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이미 다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화 활동은 문화 산업이 구축한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

- ① 문화 산업은 소비 주체의 능동적 인식 능력을 무력화한다.
- ② 오늘날 문화 산업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현대인의 문화 활동은 문화 산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 ④ 소비자의 주체성은 문화 산업의 은밀한 작동 방식에 의해 강화된다.
- ⑤ 문화 산업은 상업적 이윤과 무관하게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분류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살아 있음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지각과 기억, 쾌고 감수성,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p> <p>을: 모든 유기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개별 유기체는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질서 정연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선을 지닌다.</p> <p>병: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p>

<보 기>

- ㄱ. A: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ㄴ. B: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 학대 금지의 근거이다.
- ㄷ. C: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D: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하고,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  
 을: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보 기>

- ㄱ. 갑: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 ㄴ. 갑: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
- ㄷ. 을: 강제력을 갖춘 평화 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정치 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 보장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옛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도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혼돈 상태로 있다가 변하여 기(氣)가 되고 기가 변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었으며 이제 또 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화추동의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갑

죽음은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原子)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이 없어 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을

- ① 갑: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 ③ 을: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 ④ 을: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을: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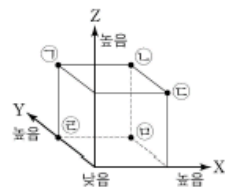
- ㄱ. 갑: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 ㄴ. 갑: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
- ㄷ. 을: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 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용광로에 여러 금속을 넣어 하나의 금속을 만들어 내듯이 주류 문화에 이민자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들이 각자 고유한 맛을 유지 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X: 이질적 문화를 관용하는 정도
- Y: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도
- Z: 여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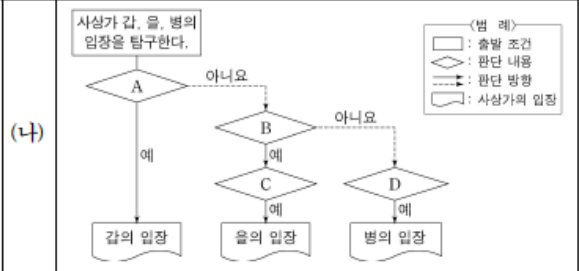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병: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보 기>

- ㄱ. A: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ㄴ. B: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 ㄷ. C: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 ㄹ. D: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보 기>

- ㄱ. 갑: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 ㄴ. 갑: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 ㄷ. 을: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된다.
- ㄹ. 갑과 을: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빠른 정답

#	정답	출제 포인트	정답률
1	2	윤리학 분류_기술, 규범	74%
2	4	윤리적 논쟁_임신 중절	70%
3	3	담론 윤리_하버마스	84%
4	1	윤리적 접근_매킨타이어	71%
5	4	기술관_하이데거, 야스퍼스	59%
6	5	의식주 윤리_베블런	92%
7	2	국가관_목자, 맹자	76%
8	1	문화 윤리_아도르노	92%
9	4	자연관_레건, 테일러, 칸트	64%
10	4	평화관_갈통, 칸트	54%
11	1	죽음관_장자, 에피쿠로스	86%
12	3	해외 원조_싱어, 롤스	66%
13	2	윤리적 논쟁_다문화 사회	80%
14	3	시민 불복종_롤스, 싱어, 소로	46%
15	1	정의관_롤스, 노직	16%
16	1	직업관_순자, 칼뱅	80%
17	4	윤리적 논쟁_저작권	93%
18	3	성 윤리_보수주의, 자유주의	80%
19	5	형벌관_칸트, 루소, 베카리아	61%
20	4	윤리적 접근_불교	86%

## #담론 윤리\_하버마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행위 개념은 말이든, 말 이외의 수단이든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주체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다. 행위자들은 일치된 의견 아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추구한다.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은 논증적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려는 합의에 호소한다. 의사소통 합리성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①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③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위해 논증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 ④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한다.
- ⑤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Comment]**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며 (사실 매우 쉬웠으며) 1번 선지는 기출에 자주 출제된 함정으로 나와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 [정답 선지]

③ 하버마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행위 조정에서 당사자 간 논증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① 하버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1</sup>
- ② 하버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는 논리적 주장 능력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④ 하버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았다.
- ⑤ 하버마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이라도 자발적 합의가 아니라면 강제 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sup>1</sup> 애초에 제시문에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주체의 상호 작용’이라고 언급되었다.  
Made by Geunro



# #윤리적 접근\_매킨타이어

4.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핵심적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에 접근할 수 없다.

<문제 상황>

학생 A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상 플랫폼에서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결식아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동을 후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하세요.
- ②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 ③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도구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④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세요.
- ⑤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 관념에 따라 행동하세요.

**[Comment]** 매킨타이어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적 덕 윤리관만 잘 알아도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것이다.

## [정답 선지]

① 매킨타이어의 사상적 입장이다. 매킨타이어는 덕이란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라고 보았다.

## [오답 선지]

(설명 생략)

# #기술관\_하이데거, 야스퍼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중 그동안 망각되었던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을: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의 선용과 악용은 인간 속에 들어 있는 다른 근원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ㄴ. 갑: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 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ㄷ. 을: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중립적이다.  
 ㄹ.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Comment]** 하이데거(갑)과 야스퍼스(을)의 기술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하이데거는 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고, 야스퍼스는 인정하는 입장을 알고 있었다면 풀 만 했을 것이지만, 두 사상가 모두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는 가치 중립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 [정답 선지]

- ㄱ. 하이데거의 사상적 입장이다. 하이데거는 현대인은 기술의 도구적 본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ㄴ. 하이데거의 사상적 입장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탈은폐’의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공통적 입장이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모두 기술이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도구적 가치는 인정했다.

## [오답 선지]

ㄷ. 야스퍼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야스퍼스는 기술의 선택과 활용 측면에서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의식주 윤리\_베블런

6. 그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만 금전적 능력만으로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이 수단은 사회 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비의 근본 동기는 차별적 비교에 따른 경쟁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은 자신의 상위 계층을 동경하고 소비 행위를 모방하며, 이를 통해 같은 계층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계층에서도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 ①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가?
- ② 과시적 소비의 욕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서도 나타나는가?
- ③ 동일 계층 내에서의 경쟁심은 과시적 소비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 ④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는 하위 계층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는가?
- ⑤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하는가?

**[Comment]**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베블런이 부정할 입장을 고르면 됐으며, 당연히 맞았어야 할 문제였다.

## [정답 선지]

⑤ 베블런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베블런은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거의 모든 계층이 과시적 소비며,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에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 [오답 선지]

(설명 생략)

##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sup>2</sup>

<sup>2</sup> 5번 선지가 '과시적 소비를 하는 계층'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계층' 간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 #국가관\_목자, 맹자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兼愛] 서로 이롭게 해야만[交利] 한다.

을: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생업[恒産]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恒心]을 지니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보 기>

ㄱ. 갑: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ㄴ. 갑: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ㄷ. 을: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이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목가 사상가 목자(갑)와 유교 사상가 맹자(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문제는 쉬웠지만 윤리 과목에서 목자를 본격적으로 묻고 있으며, 맹자 혹은 공자와의 차별적 입장을 중심으로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정답 선지]

- ㄱ. 목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목자는 군자가 친분의 얽매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겸애’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ㄷ. 맹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맹자는 기본적 생계가 지켜지지 않아 백성이 악행을 저지른 것에 기본적 생계(항산)를 보장하지 않은 군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ㄴ. 목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목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ㄹ. 맹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맹자는 군주가 궁극적으로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sup>3</sup>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

<sup>3</sup> 선지가 ‘이로움’과 ‘의로움’ 간 논리적 전후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 #문화 윤리\_아도르노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 문화 산업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문화 산업은 인간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 고객에 대한 문화 산업의 가장 큰 봉사는 빼앗긴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은밀하게 작동하는 문화 산업은 인간의 의식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 문화 산업이 문화 상품의 소비 촉진과 이윤 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이미 다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화 활동은 문화 산업이 구축한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

- ① 문화 산업은 소비 주체의 능동적 인식 능력을 무력화한다.
- ② 오늘날 문화 산업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현대인의 문화 활동은 문화 산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 ④ 소비자의 주체성은 문화 산업의 은밀한 작동 방식에 의해 강화된다.
- ⑤ 문화 산업은 상업적 이윤과 무관하게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분류한다.

**[Comment]**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문제도 굉장히 쉬웠고, 선지도 매우 명확했으므로 당연히 맞혔어야 할 문제였다.

### [정답 선지]

① 아도르노의 사상적 입장이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자본에 종속되어 소비자의 주체성을 무력화한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설명 생략)

# #자연관\_레건, 테일러, 칸트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살아 있음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지각과 기억, 쾌고 감수성,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p> <p>을: 모든 유기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개별 유기체는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질서 정연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선을 지닌다.</p> <p>병: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p>

<보 기>

ㄱ. A: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ㄴ. B: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 학대 금지의 근거이다.

ㄷ. C: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D: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레건(갑), 테일러(을), 칸트(병)의 자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밴다이어그램 문제이다. 전형적인 기출 패턴처럼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도덕적 권리 주체에 대한 포함 관계를 유의해야 했다.

## [정답 선지]

ㄴ. 칸트만의 차별적 입장이다. 탈인간 중심주의인 레건, 테일러와 달리 칸트는 동물 학대 금지의 근거가 인간 존엄성 훼손에 있다고 보았다.

ㄹ. 레건, 테일러, 칸트의 공통적 입장이다. 각각 동물, 생명체, 인간이 수단으로서 이용되지 않아야 하는 존재이고,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 [오답 선지]

ㄱ. 레건과 테일러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탈인간 중심주의자로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ㄷ. 세 사상가 모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세 사상가 모두 생태계의 범주 안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 [Tips] 밴다이어그램

밴다이어그램 문제에서 **교집합 부분은 공통적 입장, 나머지 부분은 차별적 입장**에 해당한다. 단일한 사상가의 사상적 입장을 묻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모든 사상가가 해당 선지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 - 오답이 되는 원리 -

(A의 B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 답일 때)

1.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2.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3.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 #평화관\_갈통, 칸트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하고,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

을: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보 기>—

ㄱ. 갑: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ㄴ. 갑: 구조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  
 ㄷ. 을: 강제력을 갖춘 평화 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정치 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Comment]** 갈통(갑), 칸트(을)의 평화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갈통과 칸트의 공통적 입장인 ㄹ 선지가 헛갈릴 수도 있지만, 각 사상가의 평화 실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

## [정답 선지]

- ㄱ. 갈통의 사상적 입장이다. 갈통은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보았다.
- ㄴ. 갈통의 사상적 입장이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의 일종으로 예술이 있다고 보았다.
- ㄷ. 갈통과 칸트의 공통적 입장이다. 갈통은 정치 체제 개선을 통한 사회 구조 변혁에 의해, 칸트는 각 국가의 공화정 수립에 의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ㄷ.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강제적인 평화 조약은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없고,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갖춘 평화 연맹이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죽음관\_장자, 에피쿠로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옛 진인(真人)은 삶을 기뻐할 줄도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혼돈 상태로 있다가 변하여 기(氣)가 되고 기가 변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었으며 이제 또 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춘하추동의 사계절이 변갈아 운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갑

죽음은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原子)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이 없어 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을

- ① 갑: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 ③ 을: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 ④ 을: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Comment]** 장자(갑)와 에피쿠로스(을)의 죽음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장자가 생각하는 ‘기의 순환’과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고통의 소멸’의 죽음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맞힐 수 있었던 무난한 난이도였다.

## [정답 선지]

① 장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장자는 죽음이 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로서 인위적 감정인 슬픔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이전 설명 생략)

⑤ 장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장자는 인간을 구성하는 ‘기’가 죽음 이후에도 순환한다고 보았다.



# #해외 원조\_싱어, 롤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을: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보 기>

ㄱ. 갑: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ㄴ. 갑: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  
ㄷ. 을: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 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Tips] 싱어와 롤스의 기본 도식<sup>4</sup>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 시민 불복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의 기본 도식은 다음과 같다.

- 싱어: 공리주의적 접근 (이익 계산, 다수의 이익 등 중시)
- 롤스: 정의의 원칙으로의 접근 (정의로운 정치 제도,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중시)

**[Comment]** 싱어(갑)와 롤스(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두 사상가의 해외 원조의 목적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오답 선지는 꽤 명확했다.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기본 도식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었을 것이다.

### [정답 선지]

- ㄴ. 싱어의 사상적 입장이다. 싱어는 국내 부조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해외 원조를 실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ㄹ. 싱어와 롤스의 공통적 입장이다. 싱어와 롤스는 각각 공리주의적 입장과 정의의 원칙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보편적 의무라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ㄱ. 싱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고 보았다.
- ㄷ.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롤스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정치 제도 개선 이후에는 원조가 종료된다고 보았다.

4 ‘해외 원조’ 주제 뿐만 아니라, 14번의 ‘시민 불복종’ 주제도 해당한다.

# #시민 불복종\_롤스, 싱어, 소로

14.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p> <p>을: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p> <p>병: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p>
(나)	

< 보 기 >

ㄱ. A: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ㄴ. B: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ㄷ. C: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ㄹ. D: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롤스(갑), 싱어(을), 소로(병)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순서도 유형이라 다소 정답 판정 과정이 복잡했지만, 각 사상가의 기본 입장만 알았어도 정답은 맞힐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선지]**

ㄴ. 소로에 대한 싱어의 차별적 입장이다. 개인의 양심에 의해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소로와 달리,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싱어의 사상적 입장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의한 존중심에 의한 것이므로 민주 사회일수록 옹호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ㄱ. 싱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고 보았다.

ㄹ. 소로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Tips]** 순서도

순서도 유형은 ‘**화살표가 갈라지는**’ **팩트에 해당하는 선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갑은 ‘예’, 을은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은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입장**으로, 두 사상가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단, 3명의 사상가가 나올 경우에는 화살표가 닿는 두 사상가만 먼저 판독해야 한다.

# #정의관\_롤스, 노직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보 기>

ㄱ. 갑: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ㄴ. 갑: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ㄷ. 을: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된다.  
ㄹ. 갑과 을: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Comment]** 롤스(갑)와 노직(을)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당시 오답률 1위(84%)였으며,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을 세부적으로 알기 보다는, ‘절차적 정의’라는 큰 틀에서 각 사상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 [정답 선지]

- ㄱ.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정의로운 분배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롤스는 상호 협동 체제의 사회를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는 분배가 정당하다고 보았다.<sup>5</sup>

## [오답 선지]

- ㄷ. 노직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직은 국가는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개인의 소유권 침해 방지 등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sup>6</sup>  
ㄹ. 노직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직은 분배 정의의 목표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 보호에 있다고 보았다.

## [Tips] 롤스-노직의 출제 포인트

생활과 윤리에서 최고난도로 출제되는 ‘롤스-노직’ 유형에서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큰 틀에서 접근해보자.

- 1. 절차적 정의의 원칙/조건
- 2. 사회적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

<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sup>6</sup>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국가의 역할이 분배 교정에 한정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

# #직업관\_순자, 칼뱅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했는데 존귀함과 비천함, 어른과 아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능력 있고 능력 없는 자를 구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일을 맡겨 자신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하였다.

을: 신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召命)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신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지정해 주었다.

—<보 기>—

ㄱ. 갑: 직업의 배분에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ㄴ. 갑: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ㄷ. 을: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에 귀천이 생긴다.  
ㄹ. 갑과 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부를 쌓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순자(갑)와 칼뱅(을)의 직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사상가만 확인했다면 선지에서는 판별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정답 선지]

- ㄱ. 순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순자는 개인이 ‘도’에 능통한지에 따라 직업이 나뉘어진다고 보았다.
- ㄴ. 순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순자는 자신의 직업에서 직분을 다하는 것이 사회 규범인 ‘예’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ㄷ. 칼뱅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칼뱅은 모든 직업이 구원의 증표로서 귀천이 없다고 보았다.
- ㄹ. 순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순자는 개인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예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보았다.



# #형벌관\_칸트, 루소, 베카리아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p> <p>을: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p> <p>병: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선회하고자 한다.</p>
(나)	

- ① A와 F: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
- ③ C: 사회 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⑤ E: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Comment]** 칸트(갑), 루소(을), 베카리아(병)의 형벌에 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60%대 정답률로 그리 쉽지도, 어렵지도 않았으며, 루소의 사회 계약설에 대해 정확히 알았으면 4번 선지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 [정답 선지]

⑤ 베카리아의 칸트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다. 베카리아는 칸트와 달리, 살인죄에 대한 종신 노역형은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① 칸트와 루소의 공통적 입장이다. 칸트와 루소 모두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루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루소는 사형이 국가(또는 사회)의 존립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베카리아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을 기반으로 사형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④ 루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루소는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이 살인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전제한다고 보았다.

## [Tips] 비판 유형

비판 유형의 취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적 입장 찾기’이다. 비판 유형의 선지는 ‘A는 B가 X를 간과한다고 보았다.’는 형식인데, X는 B에 대한 A의 차별적 입장이 된다. 이때 선지가 오답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X가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2. X가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3. X가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 A가 할 말이 아니다.

7 큰 틀에서 두 사상가 모두 사회 계약을 근거로 들 수 있다.